

정치 프리즘

‘산넘어 산’ 야권대통합

비전·쇄신 없이 기득권 집착 주도권 싸움

진보정당 소통합 분화...지역정치권 비주류 전략 우려

민주당 지도부가 야권 통합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하지만 통합의 방법론을 두고 당내의 반발은 물론 진보 정당의 외면 등 해결할 난제도 수두룩하다.

야권대통합에 대한 국민적 감동과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범야권의 보다 과감한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4면>

◇**감동 실종**=야권 대통합은 말 그대로 야권의 정당들과 시민사회세력이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과감한 기득권 포기를 통해 하나의 정당에 모임으로서 국민적 감동과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다. 당장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 통합연대 등은 야권대통합보다는 진보 정당 간의 통합을 이룬 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 연대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권 통합의 방법론을 두고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마저 거론하고 있다.

혁신과 통합, 일부 시민사회 세력과 통합이 야권대통합이라는 냉소적 시각과 함께 ‘무너진 통합 정당, 도로 민주당’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반복되는 야권의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도 크다.

◇**비전 실종**=야권대통합의 흐름은 안풍(안철수 바람)으로 나타났듯이 기존 정당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도 바탕이 되고 있다. 이는 실업난, 전세난, 고물가, 반값 등록금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의

해법을 제시하고 20~30 세대 등 민심과의 소통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로 집약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통합 국면에서 야권은 이를 반영하고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 접근과 정당 혁신 방안을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적 접근이 우선되면서 야권대통합을 통한 수권정당의 비전과 진정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통합 정당의 지도부 구성과 내년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지분 분

제 등이 불거진다면 ‘선거용 가설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변화를 상징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야권 통합은 ‘팔소 빠진 전뿔’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 정치권 실종**=야권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과 비례해 광·전남지역 정치권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야권 통합의 논의 구조에서 지역 정치권이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권 통합을 주도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혁신과 통합 지도부에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인사는 찾아

보기 힘들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이 당헌·당규에 따른 민주당 중장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야권 통합은 ‘팔소 빠진 전뿔’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논의 구조 속에서 통합 정당이 출범할 경우, 민주당의 핵심이었던 광주·전남 정치권은 주류보다는 비주류로 밀리면서 정치적 종속 변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통합 논의에서 친노 세력이 주축으로 부상하면서 ‘도로 우리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기다리며 각각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FTA 비준되면 3개월내 ISD 재협상 요구”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국회가 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도록 권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한미 FTA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 및 한나라당 홍준표 대

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해도 저쪽(미국)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손 대표의 물음에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의 재협상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 대표는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는

요구를 재확인한 뒤 “대통령의 새 제안이 있었으므로 제안을 당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소집, 이 대통령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부정적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제안은 ‘비준 즉시 재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오라’

는 민주당 내 협상파의 제안에도 못 미치는 것이어서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은 ‘선(先) 재협상, 후(後)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면담 이후 손학규 대표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정동영 최고위원, 정장선 사무총장, 이용섭 대변인, 홍영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금품 요구·공금 횡령... 광주시 공무원 잇단 비리

3명 직위해제 ‘초유사태’

광주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시청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공무원 3명이 한꺼번에 직위 해제되는 시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공직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시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15일 총인 사설 입찰로 비의혹 낙찰목 과문의 당사자인 도시철도건설본부 반모(57) 서기관 등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 했다. 이들은 업체 관계자를 만나 금품을 요구 하거나, 공사추진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비리유형도 다양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직위해제된 반씨는 총인 사설 시공사 선정 후 업체 관계자와 만나 로비 의혹과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

한 듯한 발언을 한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광주일보 15일자 6면>

반씨는 당시 “×씨러 갈 때와 올 때 가 다르면 안 된다”는 등 업체 관계자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 A씨(7급)는 광주시 자체 감사결과 공금 1억1000만원을 횡령하고 4000여만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한 달에 2500만원 가량의 공금을 자기 돈처럼 빼다 썼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눈치도 채지 못했다. 자체 감사가 없었다면, 더 많은 혈세가 유용됐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들롱나자 횡령한 공금을 변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면으로 계속

알림

광주일보 신춘문에 공모

단편소설·시·동화... 12월 15일 마감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에’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는 광주일보 창간 이래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정신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마감 : 2011년 12월15일(15일자 소인 유효)
- 보내실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문의 : 062-220-0645)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전화번호·주소·e메일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요.
 - 응모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된 경우 당선시 취소됩니다.
 - 당선작은 2012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우암학원 장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43
1968 2011

광주·전남의 미래

광주은행이 책임집니다.

지나온 43년, 앞으로 나아갈 100년

지역민들의 성원속에 세계 100대 은행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JB **광주은행**

-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 후원은행
-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후원은행

ECO GEO SUNGCHON BAY GARDEN EXPO 2013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